

【第13回 中原文化研究所 公開講座 要旨】

湖洛學派 儒學者들의 門人系列에 관한 概觀

김 태 영(사회교육과 명예교수)

1. 서론

조선조의 성리학은 理氣論을 근거로 心性論에 관한 논쟁이 이론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한 것은 퇴·율에 이르러서이다. 퇴계의 主理論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영남학파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고 율곡의 主氣論은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畿湖學派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런데 기호학과 안에서 湖西(충청도) 유학자들 간에 性論에 관한 논쟁이 18c 전반부터 크게 일기 시작하여 湖論과 洛論으로 나누어져 이른바 人物性同異論이 전개되었다. 이 양론간의 논쟁을 湖洛論爭이라 하는데 이들 유학자들은 주로 충청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논쟁의 발단은 기호학파의 대통을 이은 淸風의 權尙夏(1641-1721, 호는 遂庵)의 문인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의 학맥을 보면, 李珥(1536-1584, 호는 栗谷)→金長生(1548-1631, 호는 沙溪)→(김 집;1574-1656, 호는 慎獨齋)→宋時烈(1607-1689, 호는 尤庵)→權尙夏로 이어진다.

그의 수 많은 문인 중 뛰어난 8인을 黃江門下八學士¹⁾라 하는데, 그 가운데 더욱 뛰어난 학자는 湖論을 주장한 韓元震(1682-1751, 호는 南塘)과 洛論을 주장한 李柬(1677-1727, 호는 巍巖)이었다. 율곡의 '理通氣局論'에서 理通이라는 理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어 人物性俱同論을 주장한 李柬의 性論을 洛論이라하고, 氣局에 초점을 맞추어 人物性相異論을 주장한 韓元震의 性論을 湖論이라 한다.

이 논제에 대한 관심은 江門 유학자들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많은 유학자들의 관심의 논제가 되었다. 당시에 湖論을 뚜렷하게 지지하고 나온 유학자는 韓元震의 스승인 權尙夏를 비롯하여 강문 동료인 尹鳳九(1681-1767, 호는 屏溪), 崔徵厚(호는 梅鳳), 蔡之洪(1683-1741, 호는 鳳巖)이고, 洛論을 뚜렷하게 지지하고 나온 사람은 강문 동료인 玄尙壁(호는 冠峯)을 비롯하여 宋時烈的 문인이면서 李端相(1628-1669, 호는 靜觀齋)의 문인인 金昌協(1651-1708, 호는 農岩)과 金昌翁(1653-1722, 호는 三淵), 김창협(1672-1744, 호는 杞園), 김창흡의 제자인 朴弼周(1655-1748, 호는 黎湖), 그리고 뚜렷한 사승은 없지만 송시열과 宋浚吉(1606-1672 호는 同春)을 숭모고 자득한 바가 많은 李緯(1680-1746, 호는 陶庵)와 그의 제자 宋明欽(1705-1768 호는 櫟泉)이다. 이 들에서부터 시작되는 호론과 낙론의 지속적인 논변이 이루어지는데 후세의 유학자들은 이것을 湖洛論爭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유학의 학문적 풍토를 고조시키면서 근대 유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人物性同異의 호락논쟁을 개괄하고 이들 湖洛

1) 韓元震, 李柬, 尹鳳九, 蔡之洪, 李頤根, 玄尙壁, 崔徵厚, 成晚徵.

論者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후의 師承關係를 통한 學脈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2. 人物性同異의 湖洛論爭

율곡 주기설의 독특한 표현인 理通氣局說은 기호학에서 금과옥조로 여겼다. 이통기국은 송대 程朱學에서 말하는 程頤의 理一分殊와 朱熹의 理同氣異, 그리고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을 간결하게 통합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理一, 理同, 本然之性은 理通이고 分殊, 氣異, 氣質之性은 氣局이라는 것이다. 理通의 이는 統體 一太極의 理로서 만유에 일관하는 本體를 지칭한 말이고 通은 본체의 동일성과 보편성을 표현한 말이다. 氣局은 구체사물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표현한 것이다. 湖論의 韓元震은 理通은 존재론적인 명목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氣局인 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人性和 物性が 같지 않다고 하고, 洛論의 李柬은 개체에 앞서서 理通이라는 보편성에서 볼 때 人性和 物性が 같다는 것이다.

湖論에서,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맹자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 글에서, “理로서 말하면 하늘이 준 仁義禮智를 어찌 동물이 온전히 얻었다 하겠는가?”²⁾ 라는 朱子의 주석에 두고 있다. 그래서 物은 편협한 氣를 받았으므로 품수 받은 性도 편벽하여 인성의 온전한 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성과 물성이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人物性相異論을 주장한다.

洛論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를 공자가 「中庸」에서, “천명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고 주장하는 글에, “人物이 생겨남에는 각기 그 하늘이 부여한 理를 얻으므로 인해서 五常을 굳건히 따르는 德이 되니 이것을 일러 性이라 한다”³⁾는 주석에 두고 있다. 즉 인성과 물성은 다 五常을 굳건히 따르는 덕을 하늘로부터 다 같이 받았다는 人物性俱同論을 주장한다. 여기서 “인물이 생겨남에 각기 하늘에서 부여한 理를 얻으므로 인하여”(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라는 말에서, ‘각기’(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였다. 人物性相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각기’를 ‘각기 다른 것’(各異)이라 해석하고 人物性相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각기’를 ‘각기 같은 것’(各同)이라 해석하는데서 양론의 결정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실을 李柬 자신이 술회하고 있다.⁴⁾

이 양논의 대표성을 갖는 호론의 한원진과 낙론의 이간이 주장하는 성론만을 간략히 들어 보기로 한다.

韓元震은 인간과 물의 본성을 氣質之性이라 규정하고 기질지성은 인과 물의 형색 성향에 따라 본연의 성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未發의 本然之性和 已發의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물의 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면서 善과 惡을 함께 하고 있는 기질지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人과 物, 人과 人, 物과 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李柬은 주장하기를, 본연지성은 未發의 性이기 때문에 기질지성과 같이 선악이 있을 수 없

2) 「孟子」告子章句 上, 生之謂性章, 註, “以理言之, 則仁義禮智之稟, 豈物之所得而全哉”

3) 「中庸」, 天命之性章句, 朱子註, “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4) 李柬, 「巍巖遺稿」 卷12, 雜著 ‘五常辨’, “元來此說本起, 「中庸」首章, ‘人物之生 因各得其理以爲健順五常之德’一句也, 三五年來首尾所爭, 本在此一句, 而又其爭端, 却在‘各’之一字.

는 純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본체론적 입장에서 인과 물, 인과 인, 물과 물이 相同(俱同)하다고 한다.

결국 기호학과 철학의 기본명제인 理通氣局에서 이통은 理一로서 人·物의 性이 상동이고, 기국은 分殊로서 人·物의 性에 善惡·偏全·通塞의 相異가 있는데, 어느 면을 강조하는가에 의해 湖洛兩說의 學派이 나누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 후 오랜 동안 주로 師承關係의 湖洛學派별로 人物性同異에 관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3. 湖洛學派의 門下系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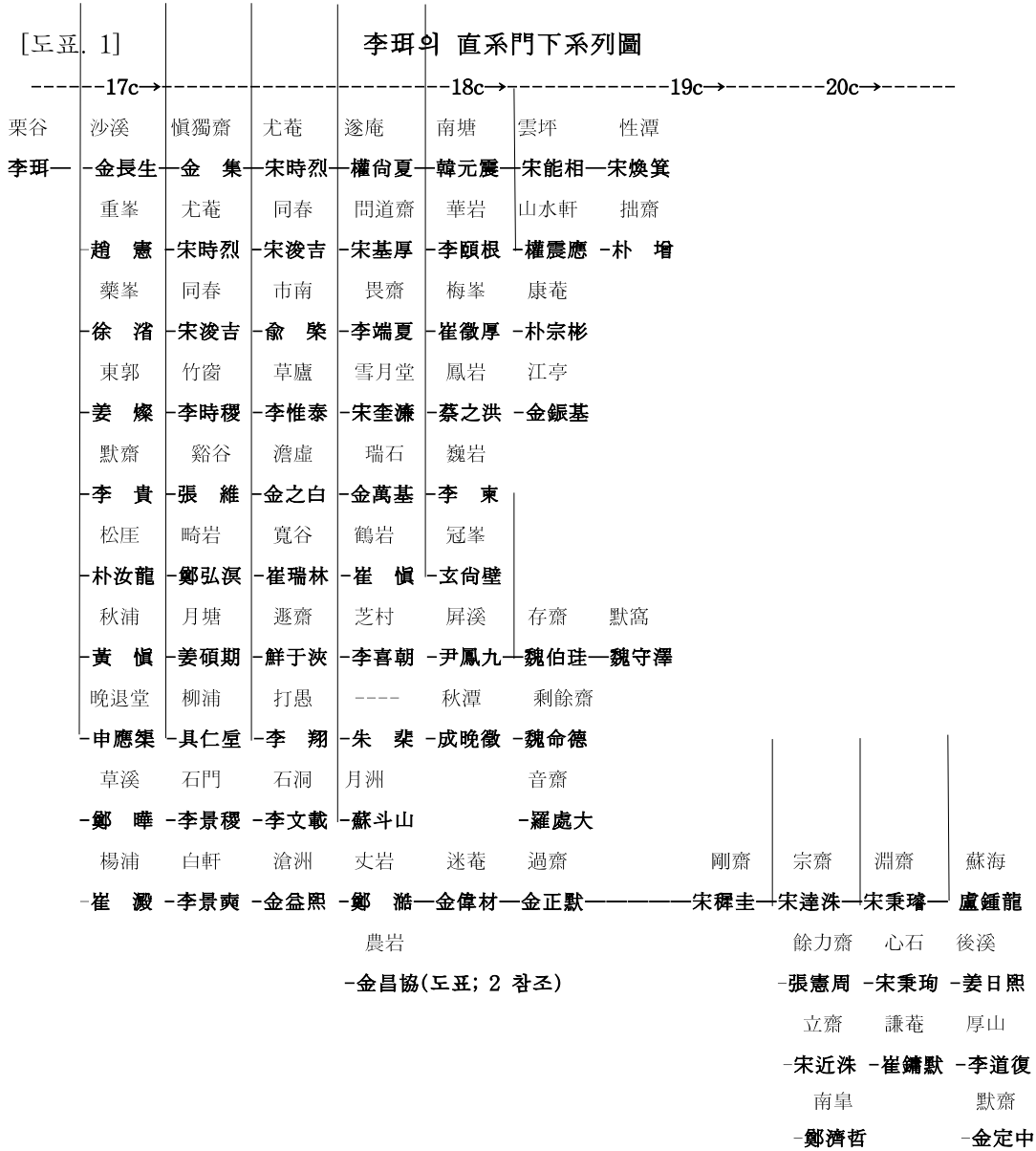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李珣가 主氣論에서 理氣關係를 독창적으로 理通氣局이라고 표현한 이래 이것이 기호학파의 철학적 기본명제로 되었으나 이 명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호락 양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논쟁이 17c를 거쳐 18c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논쟁이 대체로 문하계열의 師承關係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가운데 약간의 이론적 변천을 겪으면서 그 논쟁이 19c까지 이어왔다.

우선 李珣의 주기론을 이은 기호학파의 직계문하 계열을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李珣의 제자의 수는 많으나 뛰어난 제자만을 들어 아래 계열도에서 10명만을 들어 보았다. 이 가운데 더욱 탁월한 제자 둘 만을 든다면, 金長生(1548-1631, 호는 沙溪)과 趙憲(1544-1592, 호는 重峯)을 들 수 있다. 김장생은 조선조 전기유학을 후기유학으로 매개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으며 율곡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실천적 삶에 대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예학을 연구한 조선조의 예학체계를 세운 대표적 禮學者이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이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예학자인 宋翼弼(1534-1599, 호는 龜峯)의 문하생이기도해 그의 예학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趙憲은 뛰어난 식견과 경륜을 유학자이었지만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의병장으로서 일군과 싸우다가 순절하고 말았다. 그는 이이와 학문적 교유가 있던 成渾(1535-1598, 호는 牛溪)의 제자이기도 하다. 뒤에 그는 眞儒라는 극찬을 받았고 忠節과 道學을 함께 겸비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我東方 18賢의 한 분으로 문묘에 봉안되어 있다. 또한 이이의 문하에서는 송익필의 제자이기도한 鄭曄(1563-1625, 호는 草溪)·徐潛(1558-1631, 호는 藥峯)·姜燦(1553-1603, 호는 東郭)을 비롯한 많은 名臣이 배출되었고, 기호지방에 사는 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학설을 따라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그의 많은 제자들이 직간접으로 당시의 名儒인 송익필과 성혼의 사상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李珣의 제자가운데 그 嫡統을 가장 분명하게 이어간 사람은 金長生이다. 그는 높은 벼슬의 기회를 버리고 충남 連山에서 명망 있는 士林儒學者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힘썼다.

김장생은 처음에 송익필에게 배우다가 율곡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가 예학에 관한 많은 저작물을 내고 예학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 송익필의 학문적 영향이다. 성리학은 오직 이이의 학설을 따르고 퇴계의 호발설을 비판하였다. 그가 禮의 실천을 중시한 것은 修己治人의 유교의 목표 중 修己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학문을 하는 근본은 먼저 敬을 주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敬은 禮의 體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家學을 잘 이어받은 아들 金集과 함께 文廟에 配享 되었다. 그의 문인은 충청도 일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

나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제자 10명을 들어 본다면, [도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金長生の 積統을 이은 사람은 가학을 이어 받은 김집이다. 그 외에 김장생의 문하생 중 뛰어난 사람은 宋時烈과 宋浚吉(1606-1672, 호는 同春)이다. 송시열과 송길준은 독족이고 이 두 사람은 김장생의 문인이면서 김집의 제자이기도 하다. 송준길은 “송시열과 정치생활을 힘께 하여 예송에서 행동을 같이 하였다”⁵⁾. 이이의 理氣心性論을 그대로 따르고, 특히 이이의 이통 기국설은 탁견임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金集은 송익필·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 예학파의 積統적 지위에 있다. 그는 존경받는

5) 劉明鍾, ‘同春 宋浚吉’,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p.73

山林 儒學者로서 禮學을 깊이 탐구하고 예의실천에 전력을 다 하면서 제자교육에 힘썼다. 그는 趙光祖(1482-1519호는 靜菴)의 경세론과 李滉의 수양론을 따랐으며 成渾을 존송하였다. 그는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理氣心性論 보다도 眞知實踐을 강조하는 예학으로 학문의 근간을 삼고 敬을 하기 위한 毋自欺·慎其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周易』, ‘文言’의 ‘敬以直內와 義以方外’를 禮의 실천 정신으로 삼았다.⁶⁾ 그의 많은 제자 중 탁월한 제자 10명을 위 [도표; 1]에 제시 해 보았다. 그 중 송시열·송준길·李惟泰(1607-1684, 호는草蘆)·鮮于浹(1588-1653 호는 遯齋)이 발군의 제자이다.

李惟泰는 金山 사람으로 18세부터는 김장생의 문하에 있었고 40세에 김집의 문하에 들어갔다. 송시열·송준길·俞棨(1607-1664, 호는 市南) 등과 함께 禮訟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역시 學統에 따라 이이의 이기심성론을 따르고, 특히 수양론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수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⁷⁾

鮮于浹은 평남 대동 사람이고 평양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황·張顯光(1554-1637,호는 旅軒)을 찾아가 만나 보았으나 서울에서 김집의 문하로 들어갔다. 그는 한결 같이 朱熹로서 正說 삼고 마음으로 일신을 主宰하는 것을 敬으로 할 것과, 그리고 이 敬과 尊德性으로서 修己治人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嚴恭寅畏를 敬으로 보고 存德性和 함께 해서 存心和 政事할 것을 왕에게 상소로 진언하기도 하였다. 그는 心性論과 義理論에 있어 독창적인 논의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⁸⁾

宋時烈은 김장생과 김집의 걸출한 嫡統 문하생으로서 주자학과 율곡학에 대한 탐구를 깊이 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趙光祖(1482-1519, 호는 靜菴)를 비롯한 義理學의 學統도 이어 받았다. 따라서 그는 기호유학의 대 학자로서 宋子라 칭함을 받았고 사후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는 충북 沃川에서 출생하여 懷德의 송씨 촌으로 이사해 친족인 송준길과 함께 공부했고, 24세부터 김장생의 문하생이 되었고, 뒤에 김집의 문하에서도 공부했다. 그가 살던 17c는 西勢東漸의 충격, 대륙으로 부터의 양대 호란, 민중 봉기, 2차의 禮訟과 이에 따르는 黨禍, 도탄에 빠진 민생 등,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은 식자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일생 주자학 연구와 공자의 춘추대의, 맹자·주자의 關異端 정신 등의 구현을 그의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였다.”⁹⁾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주자가 살던 시기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인식하에 현실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주자학에 탐구에 열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차적 학문의 연원은 家學에 있었다. 그의 부친은 그에게 말하기를, “주자는 나중에 태어난 공자이고 율곡은 나중에 태어난 주자이니 주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이의 理氣心性論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에 대한 論理的 整合性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正祖는 송시열의 학문됨을 칭송해 말하기를, “그의 학문은 주자와 符節한 듯 하고 학문을 익힌 계과는 李珣이며 ‘直’ 자 한자를 진리의 참된 말로 삼았다” 고 麗州에 있는 大老祠碑에 기록하고 있다. 성리학사적 지위로 볼 때, “조선조 후기성리학의 개화라 일컬어지는 인물성동이론이 그의 문도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논점으로 이어진 것은

6) 배상현, “신 독재 김집”, 한국인물유학사 2, 한길사, 1996, p.1033

7) 李惟泰, ‘中庸,’ 「四書問答」, “蓋聖人之學, 以心爲本, 經書所載之訓, 皆先治己而後治人.”

8) 嚴恭寅畏를 敬로 본 것과 三不已說이나 三貞說을 주장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9) 곽신환, 우암 송시열, 한국인물유학사 3, p. 1147

이전의 쟁점들에 대한 그의 정지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¹⁰⁾ 고 한다.

그의 문도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으나 뛰어난 제자 10 여명을 든다면, 「도표; 1」과 같다. 그 가운데 탁월한 제자로서 嫡傳을 잇고 사제의 의를 돈독히 한 제자는 權尙夏(1641-1721, 호는 遂菴)이다. 그는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萬東廟를 충북 華陽洞에 세우고 명나라 神宗과 毅宗을 제향 하였다, 또한 숙종에게 청하여 大報壇을 세워 崇明思想을 고취 하였다.

權尙夏는 이이를 조종으로 하여 송시열에 계승된 기호학을 이어받은 기호학파의 지도자이다. 그의 제자 한원진과 인간의 인물성동이론의 논쟁에 있어 한원진의 인물성상이론을 지지하였다. 그는 性三層說과 未發心體有善惡說을 주장하여 인물성상이론을 정당화 하였다.

그가 높은 벼슬을 사양하고 淸風 黃江(提川, 寒水)에서 講學할 때 많은 제자들이 모여 들었으나 뛰어난 제자로는 「도표; 1」에 열거한 여덟 명의 황강문하팔학사가 있다. 그들 제자 중에 韓元震의 人物性上同論에 가담한 사람은 蔡之洪(1683-1741, 호는 鳳岩)과 尹鳳九(1681-1767, 호는 屏溪)이고 李柬의 人物性九同論에 가담한 사람은 玄尙壁(호는 冠峯)이다.

기호학은 인물성동이론의 논쟁으로 낙론과 호론의 양파로 갈리어지지만 기호학의 적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호론의 한원진이다. 낙론은 호론과는 달리 기호학의 특색인 主氣的 성향이 점점 약화되고 主理的 요소가 점점 가미되어 갔기 때문이다.

韓元震은 서울에서 출생했으나 조부 縣監公을 따라 洪城 南塘으로 옮긴 이래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는 일찍이 諸家書를 독파하고, 21세에 淸風 黃江에 있는 권상하의 강학에 참여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그 적통을 이으면서 인물성상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湖論에 동조한 蔡之洪(1683-1741, 호는 鳳岩)은 충북 鎭川 文白 사람으로 황강문팔학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권상하의 설이 온당함을 저술서 「性理管窺」를 통해서 주장하였다.

尹鳳九(1681-1767 호는 屏溪)는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으로 호론의 증견이다. 인물성동구론을 주장하는 낙론의 증견 지지자 李緯(1680-1746, 호는 陶庵)와 朴弼周(1655-1748, 호는 黎湖)와 논쟁을 버렸다. 특히 이후 인물성동이론은 기호학파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에 거친 성리학자들의 논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의 제자는 많으나 비교적 뛰어난 제자는 「도표; 1」에서 보이는 세 사람이다. 수제자로서 유학사상 주목을 받는 사람은 魏伯珪(1727-1798, 호는 存齋)이다.

魏伯珪는 全南 長興 사람이다. 그는 스승 윤봉구를 따라 인물성상이의 호론을 지지하였다. 그의 人說은 인간학으로서 도덕적 인간학을 주장하였다. 성현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도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인간이 만물 중에 존귀하고 신령스러운 것은 단지 仁義禮智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한원진 이래의 性卽氣質論에 근거한 인물성상이론을 따르고 있다.¹¹⁾ 그의 제자 10여명 중에 수제자는 魏守澤(호는 默窩)이다.

한원진의 제자는 많으나 학문적 족적을 크게 남긴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향리에서 제자를 많이 기른 네 사람을 「도표; 1」에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제자양성에 공이 큰 사람은 宋能相(호는 雲坪)이다. 송능상의 여러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은 族姪인 宋煥箕(1728-1807, 호

10) 위 책, pp.1171-1172

11) 劉明鍾, 위 책, pp. 172-175

는 性潭)이다.

송환기는 보은에 살았고 송시열의 5대 손이다. 그는 한원진의 호론을 지지하였다. 학덕을 겸비하여 조야의 존경을 받았으며 문하에는 많은 선비가 모아 들었다. 懷北面 新谷里에 있는 興仁祠에 제향되어 있다.

송시열의 문도 중의 한사람인 鄭澐(1648-1736, 호는 丈岩)의 문도계열이 형성되어 있다. 정호는 송시열의 뛰어난 제자이고 좌영의정 鄭澈의 현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大司成에 재임했을 때는 송시열의 廟庭 배향을 건의했을 만큼 스승에 대한 의리가 대단하였다. 그의 門人系列은 金偉材(호는 迷岩)—金正默(호는 過齋)—宋穉圭(1759-1838, 호는 剛齋)로 이어진다.

이 계열에서 뛰어난 사람은 宋穉圭인데 그는 송시열의 6대 손이다. 벼슬의 기회가 있었으나 나가지 아니했고 오직 평생 동안 학문과 제자 양성에 힘써 수많은 문도를 두었다. 한원진의 心性理氣論과 禮說이 李珣와 宋時烈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것의 그름을 변증하였으며 권상하의 행장을 보고 선현의 뜻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그의 學問觀을 보면, 학문은 讀書窮理를 먼저하고 反躬實踐을 근본으로 삼아서 敬을 그 요체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湖洛論이 분열하여 서로 심하게 논쟁하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기론에 있어 主氣論을 따랐다. “理가 氣를 타지 않고 스스로 발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인물성동이론에서 낙론의 人物性俱同論을 지지하였다. 그는 “氣質은 다만 人과 物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같지 않고, 사물마다 각각 같지 않다. 本然은 사람마다 같을 뿐만 아니라, 物, 또한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것이 一本이고 萬殊요, 萬殊이고 一本인 까닭이다.”라고 하여, 기질로 보면 모두가 같지 않지만 본연으로 보면 모두가 같다는 것이다. 이 점으로 보면 호락의 양론의 입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人과 物은 明德을 고르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낙론에 찬동한 것이 된다. 그의 제자 중 활동을 많이 제자들을 보면, 宋近洙(1818-1902, 호는 立齋)·張憲周·宋達洙 등이다. 이 가운데 많은 제자를 기른 사람은 송달수인데 그의 뛰어난 제자로는 宋秉璿(1836-1905, 호는 淵齋)과 宋秉珣(1839-1912, 호는 心石)형제를 들 수 있다.

송병선은 송시열의 9대 손으로 懷德의 명문으로 世家를 내려온 한말의 巨儒였다. 학행으로 천거되어 대사헌에까지 제수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나라가 망하고 道가 망하였구나”하며 통분하였다. 그는 곧 상소하여 적신의 매국의 죄를 극논하고 아울러 5조약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의치 아니하자 상경하여 왕에게 十條封事를 올려 나라를 바로 잡을 것을 간하고 이의 실천을 주청하다가 警務使(윤철규)에 속아 일본 헌병에 의해 기차로 대전에 강제 이송 당하였다. 이 지경을 당한 그는 말하기를, “한 걸음 옮기면 한 걸음 옮기는 치욕이 있고 두 걸음 옮기면 두 걸음의 치욕이 있다”고 하고 대전 석남 촌에 있는 옛집에서 순국 자결하였다. 그는 성리학자로 수 많은 문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인을 비롯해서 문도의 저술서가 남겨지지 않아 사상적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비의 애국 충정의 義理學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가 일제 강점기 이후라서 성리학 연구에 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제자 중 비교적 후진양성에 힘썼던 사람은 [도표; 1]에 보이는 盧種龍(호는 蘇海)외 세 사람을 들 수 있다.

송병선은 경술국치 때 순국한 애국열사로서 대전에서 출생했다. 송시열의 9대 손이고 을사조약 때 순국한 송병선의 아우이다. 형과 함께 송달수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공부했다.

서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여 유학사상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그는 이이의 사단칠정론을 보완 설명하는 가운데 主理 쪽으로 기울어진 감이 있다. 그에 의하면 인심과 천리는 하나의 氣化일 뿐 둘이 아니다. 기화만을 인정하는 이 논리는 기호학파의 기본논리이다. 그는, “四端은 理를 위주로 해서 한 말로 氣가 그 가운데 있으며 七情은 氣를 위주로 해서 한말로 理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이의 七情包四端의 논리와는 달리 理氣의 四端七情兩屬性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理의 主宰性을 강조한 것이 된다. 理가 비록 氣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氣 또한 理의 명령을 듣는다. 사단칠정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았다. 이런 주장이 그가 말하는 性과 情의 관계를 말하는 소위 經緯說이다. 性은 經이고 情은 緯라는 것이다. 이 양자의 관계를 복합적 구조관계로 본 것이다.¹²⁾ 그의 여러 문도 중 적통을 이은 제자는 어유봉과 李載亨¹³⁾(1665-1741, 호는 松巖)이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인물성구동론을 찬성하고 그 논지를 발전시켰다. 어유봉은 김창협이 돌아간 뒤에는 김창흡을 따라서 문학하여 당시에 명성이 있었다. 인물성론은 김창흡을 따른 것이다. 어유봉의 문인이면서 김창협에게서도 배우고 김창협과 從遊한 李顯益(1678-1717)은 李柬의 설을 비판하고 호론을 변론하였다.

김창흡은 한양에서 성장하였으며 당쟁의 소용돌이에 환멸을 느껴 일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수 속에 은거하면서 시문에 일가를 이루면서 학문과 강론에 힘썼다. 시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수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斯文亂敵論과 人物性同異論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기론 보다는 심성론, 심성론 보다는 格致論에 관심이 컸다. 당시 남산 아래 은거하고 있으면서 격치론에 조예가 깊다는 趙聖期(1638-1689, 호는 拙修齋)를 찾아가 교류하면서 格致에 관한 논구를 했다고 한다. 그는 한원진과 인간의 호락논쟁이 있기 전에 이미 인물성동 이론에 관한 문제 제기를 주장했다. 그는 인물성구동론을 주장 하였다. 具와 ㅅ을 구분함으로써 인과 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 “仁義禮智의 품성은 人과 物이 똑 같이 갖추었으나(具) 그 발용처에 온전함(全)과 온전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¹⁴⁾ 그가 격물치지를 중시한 것은 현실 분석과 문제해결의 실용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로 볼 때 그가 “호락논쟁의 선도적 구실을 했다는 점과 格物致知論으로 실용적 사고의 틀을 전수했다”¹⁵⁾는 점에 사상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그의 여러 문도 중 뛰어난 제자는 金信謙(호는 櫓巢)과 朴弼周(1655-1748, 호는 黎湖)다. 박필주는 스승을 따라 問學하고 이재와도 절친하였으며 서로 토론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 그는 湖儒인 尹鳳九와 聖人과 凡人의 氣質 문제에 대하여 논변하였다. 그의 주장은, “발하기전에는 성인과 범인이 동일하여 기질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오직 심은 기에만 속할 수 없다”. 고 하여 이재와 같은 입장의 주장이었다. 이재의 제자인 김창협은 양손 金元行(1702-1772, 호는 漢湖)는 학행으로 당시에 중망을 받았는데 김창흡의 학설을 이어 호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주자의 『答徐元聘書』의 ‘性同氣異’에 근거 인물성상동론을 주장하였다. 주자의 이 책은 어유봉이 발견한 이래 이들 학파의 유일한 논거가 되었다. 이재의 제자 李用夏(호는 拙修齋)의 제자이고 김창흡의 현손인 金邁淳(1776-1840, 호는 臺山)은 가학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그의 저서 『闕餘散筆』을 통해서 호론과 낙론을 아울러 비판하여 낙론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다.¹⁶⁾

12) 강명관, ‘농암 김창협’ 한국인물유학사, pp.1297-1302, 참고

13) 劉明鐘, 위 책, pp.151-154, 참고

14) 이진오, ‘삼연 김창흡’ 앞 책, p. 318

15) 앞 책, pp.1321-1322

李縉와 그의 문도계열을 보면, 이재는 일찍 등과한 것을 후회하고 중년이후에는 성리학과 예학을 힘써 연구하였다. 그는 師承은 없고 조광조와 이이를 사숙하고 늘 스승으로 생각했다. 인의예지의 성은 하나의 理로서 하늘이 이 理를 부여할 때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 섰다. 따라서 단지 기질의 차이로 인하여 인과 물이 달라짐으로, 서로 다른 것은 기질의 性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호유 윤봉구와 호락 논쟁을 했는데 聖凡心不同說과 聖凡心皆同說의 논변이 였다. 그는 心은 氣에만 전속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性을 겸하여 보아야 완전하다고 한다. 그는 심에 관한 견해는 사실은 主理論이고 윤봉구는 心이 性을 떠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主氣論이다.

이재의 문도 중 뛰어난 제자는 朴聖源(호는 謙齋), 宋明欽(1705-1768, 호는 櫟泉), 任聖周(1711-1788 호는 鹿門) 등이다. 이 가운데 박성원 과 임성주는 김창흡의 제자이기도한 김원행과 함께 洛論을 계승하여 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성주는 초년에는 師說을 계승하다가 중년에 이르러 잠심하기를 10여년 舊說의 오류를 깨닫고 性異說을 주장하였다. 다만 성범심동부동론에서는 性凡心同說을 지켰다. 그는, 특히 ‘理氣同實’, ‘心性一致’를 힘써 주장했다. 그는 理氣合一을 주장하지만 主氣論者라고 할 수 있다.

이재의 문계에 속하는 洪直弼과 吳熙常은 성이설과 기일원론을 주장한 임성주를 낙론학자들이 비판하였다. 그들은 山林의 장으로서 그리고 정밀한 학문으로 낙론을 대표했던 학자이었다.¹⁷⁾

4. 결론

17-18c에 조선조 사회는 아직 사화가 계속되고, 조직적이고 격렬한 당쟁, 두 차례의 호란, 대륙세력의 압박과 서세의 동점, 토지제도의 문란과 도탄에 빠진 민생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중첩된 시기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종래 성리학의 이기심성론과 의리학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성리학의 철학적 탐구가 요청되었다. 주리로 대표되는 영남학파의 높은 이상실현을 위한 도학 중심의 사상과 주기로 대표되는 기호학파의 현실개혁의 개혁중심 사상은 각기 다른 시대관, 국가관, 인간관, 도의관을 갖고 문제해결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이의 기호학의 출발은 도의의 일상적 실천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예학연구가 활발하여 새로운 예학체계발전에 경주하여, 그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기호학파의 대명제인 ‘이통기국’에 대한 견해 차이에 근거한 호락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 양 논쟁은 자기 주장의 이론적 논거를 탐구하는 가운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간학인 심성론의 발전을 크게 가져왔다. 양론 주장자들의 각 문인계열들이 교조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개선하고 시야를 넓히는 가운데 새로운 성리학의 주제영역으로 발전하여 실학과 의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비판에 눈을 돌려보자면 소수의 부분 식자들의 논쟁 중심이라는 편파적이고 그리고 폐쇄적 논쟁에 그쳐 다수가 동의하는 정체성 있는 그리고 문제해결의 학문으로 발돋움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16)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pp. 397-399

17) 앞책, pp. 405-410, 참고

